

動 向 分 析

雇 傭

1. 최근의 고용동향

◆ 취업 및 실업구조의 개선

경기상승에 따라 고용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취업 및 실업의 질적 수준도 개선되고 있다. 2000년 1/4분기 취업자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6.3%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월별로 보면, 1월 6.1%, 2월 6.9%로 상승하다가 3월 5.9%, 4월 4.9%로 증가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1991~97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2.1%임에 비취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 1〉 최근의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명, %)

	1999. 1/4		1999. 4/4		2000. 1/4		2000. 4	
		동분기비		동분기비		동분기비		동월비
15세이상인구	35,616	1.2	35,910	1.0	35,986	1.0	36,044	1.0
경제활동인구	20,854	-0.4	21,972	2.1	21,405	2.6	21,966	1.5
(참가율)	58.6		61.2		59.5		60.9	
취업자	19,105	-3.3	20,962	5.2	20,313	6.3	21,065	4.9
실업자	1,749	48.3	1,011	-36.3	1,092	-37.6	900	-41.8
실업률	8.4		4.6		5.1		4.1	
(계절조정)	7.6		4.9		4.4		4.0	
비경제활동인구	14,762	3.6	13,938	-0.6	14,581	-1.2	14,078	0.2

자료 : 통계청.

취업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도 개선되고 있다. 경기상승 국면에서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18시간 미만 근로자 중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비자발적 단시간근로자도 줄어들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2000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6% 증

가하였으며,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0.4%, 2월 1.6%, 3월 2.7%, 4월 4.1%로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즉 ‘비자발적인 단시간근로자’는 1999년 1/4분기 35.3%였던 것이 2000년 1/4분기에는 22.5%로 줄어들었다.

실업자는 2000년 1월 1,127천명, 2월 1,121천명, 3월 1,028천명으로 1/4분기 전체로 1,092천명이었으며, 실업률은 5.1%였다. 4월 들어서는 900천명, 4.1%로 더 낮아지고 있다. 장기실업자, 중고령 및 저학력 실업자 등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직장탐색을 위한 마찰적 실업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구직기간 1~5개월 실업자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으며, 30대 이하 고졸 이상의 자발적 실업자 비중도 1999년 1/4분기 27.1%에서 2000년 1/4분기에는 43.7%로 증가하고 있다.

2. 경제활동인구 동향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반전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는 21,40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다. 남성은 12,59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5천명(1.3%), 여성은 8,26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87천명(4.7%) 증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하였다.

연령별로 경제활동인구 동향을 보면, 30대 연령계층(2.4% 감소)¹⁾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15~19세(12.0%), 40~49세(7.0%), 60세 이상(7.3%)에서 두드러졌으며, 주로 여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1/4분기 59.5%로 전년동기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 이후 감소하였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73.2%)이 증가(0.2%포인트)로 반전되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1) 30대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이 연령계층 인구의 감소에 기인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40대 이상에서 증가하고 있어 인구의 중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천명, %)

	남 자			여 자		
	1998. 1/4	1999. 1/4	2000. 1/4	1998. 1/4	1999. 1/4	2000. 1/4
15 ~ 19세	186 (9.5)	204 (10.2)	233 (12.0)	250 (13.3)	226 (11.9)	250 (13.5)
20 ~ 24세	666 (54.2)	616 (53.6)	597 (52.8)	1120 (62.5)	1,074 (61.7)	1,106 (62.7)
25 ~ 29세	1,825 (88.0)	1,722 (84.1)	1,721 (84.4)	1,074 (51.3)	1,024 (50.4)	1,051 (54.2)
30 ~ 39세	4,095 (95.8)	4,042 (95.1)	3,899 (95.1)	2,150 (52.2)	2,114 (52.2)	2,109 (52.8)
40 ~ 49세	3,039 (94.1)	3,115 (92.7)	3,313 (92.5)	1,893 (61.3)	2,004 (60.9)	2,164 (61.7)
50 ~ 59세	1,867 (84.3)	1,859 (83.3)	1,920 (82.9)	1,093 (49.5)	1,100 (48.8)	1,158 (50.6)
60세 이상	1,011 (48.6)	1,034 (46.7)	1,073 (46.3)	672 (22.9)	720 (23.4)	810 (25.2)

주 : ()안은 참가율임.
자료 : 통계청.

3. 취업자 동향

◆ 취업자 증가 6.3% : 1987년 2/4분기 이후 최고

경기회복과 더불어 노동수요가 되살아 나면서 2000년 1/4분기 취업자는 20,31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3%(1,208천명) 증가하였다. 이는 1987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취업자 증가는 경기상승 국면에서 벤처기업 등 창업, 기존 기업에서의 채용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취업자를 보면, 2000년 1/4분기 모든 연령에서 증가한 가운데 10대가 가장 높은 증가율(27.4%)을 보였고, 40대(10.5%), 60대(8.7%), 50대(7.6%)의 순이었다. 10대는 1, 2월 방학을 맞은 재학생의 취업 증가, 40대는 임시 및 일용형태 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주도하였다. 40대 취업계층 중 임금근로자는 13.4%(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제외) 증가한데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8.3% 증가하는데 그쳤다(표 4 참조).

〈표 3〉 연령계층별 취업자

(단위: 천명, %)

	1999. 1/4	1999. 4/4	증감률			
			2000. 1/4	증 감	증감률	
전 체	19,105	20,962	5.2	20,313	1,208	6.3
15 ~ 19세	317	377	22.8	404	87	27.4
20 ~ 29세	3,862	4,086	3.0	4,073	211	5.5
30 ~ 39세	5,711	5,955	0.9	5,765	54	0.9
40 ~ 49세	4,764	5,326	9.5	5,263	499	10.5
50 ~ 59세	2,754	3,109	5.3	2,964	210	7.6
60세 이상	1,695	2,110	9.1	1,842	147	8.7

자료: 통계청.

〈표 4〉 산업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40~49세

(단위: 천명, %)

		1998. 1/4	1999. 1/4	2000. 1/4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제 조 업	임금근로자	731	718	-1.7	840	17.0
	비임금근로자	235	234	-0.3	289	23.4
건 설 업	임금근로자	304	238	-21.8	311	30.4
	비임금근로자	151	107	-28.7	131	22.2
도 소 매 및 음식·숙박업	임금근로자	405	425	5.0	492	15.8
	비임금근로자	1,047	1,103	5.4	1,156	4.8
운 수·창 고 및 통 신 업	임금근로자	236	244	3.2	256	5.1
	비임금근로자	113	131	16.5	139	5.7
금 용·보 험 및 부 동 산 사 업 서 비 스 업	임금근로자	245	275	12.3	306	11.3
	비임금근로자	89	97	7.9	113	16.7
사 회 및 공 공 서 비 스 업	임금근로자	527	595	13.0	626	5.1
	비임금근로자	199	216	8.6	219	1.2

자료: 통계청.

산업별로 취업자를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9.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4%),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5.2%)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학력별로는 모든 학력에서 증가한 가운데 전문대 졸업의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중졸(7.3%), 고졸(6.8%), 국졸 이하(6.6%)의 순이다. 1999년 1/4 분기에 모든 학력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취업자는 0.1% 증가하였으며, 2000년 1/4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4.7% 증가를 보였다. 이는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상용근로자 증가로 반전, 비중은 여전히 감소

직종별로는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10.8%), 서비스·판매직(4.7%), 전문·기술·행정관리직(3.4%), 사무직(5.0%)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중 사무직의 경우는 1998년 1/4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던 것이 2000년 1/4분기 들어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이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10.7%),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7.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9%),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4.7%) 등에서 사무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5〉 직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1999. 1/4	1999. 4/4	증감률	2000. 1/4	전년동기대비	
					증	감
					감률	증률
전 체	19,105	20,962	5.2	20,313	1,208	6.3
전문·기술·행정관리직	3,799	3,957	4.6	3,927	128	3.4
사무직	2,182	2,256	-1.7	2,291	109	5.0
서비스·판매직	4,748	4,949	4.3	4,969	221	4.7
농림어업직	1,744	2,232	0.7	1,776	32	1.8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6,632	7,569	9.9	7,349	717	10.8

자료 : 통계청.

중사상지위별로 취업자 증가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442천명, 임금근로자는 12,87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7%, 8.6% 증가하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5,720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6,124천명, 임시근로자는 12.6% 증가한 4,475천명, 일용근로자는 22.7% 증가한 2,272천명이었다. 상용근로자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돌아섰으나,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증가가 더욱 높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1999년 1/4분기 50.9%에서 2000년 1/4분기 47.6%로 하락하였다.

〈표 6〉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1999. 1/4	1999. 4/4	전년동기대비		2000. 1/4	전년동기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전 체	19,105		20,962	1,038
비임금근로자	7,248	7,930	178	2.3	7,442	194	2.7
자영업주	5,570	5,987	150	2.6	5,720	150	2.7
무급가족종사자	1,678	1,943	28	1.5	1,722	44	2.6
임금근로자	11,857	13,031	859	7.1	12,871	1,014	8.6
상용	6,030	6,138	-69	-1.1	6,124	94	1.6
임시	3,976	4,407	402	10.0	4,475	499	12.6
일용	1,851	2,486	525	26.8	2,272	421	22.7

자료 : 통계청.

한편 ‘불완전 취업자’로 불리우는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는 161천명, 18시간 미만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전년동기(35.3%)에 비해 낮아졌다. 인적 특성을 보면, 40대 이상(64%), 중졸 이하의 학력소지자(46.4%)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성별로는 남녀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실업자 동향

◆ 자발적 실업자 증가

2000년 1/4분기 실업자는 1,092천명, 실업률은 5.1%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7.6천명, 3.3%포인트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717천명(5.6%), 여성이 375천명(4.3%)이었다. 성별 실업률 격차는 1.3%포인트로 경기상승 국면에 접어든 1999년 3/4분기 이후 줄어들었다.

연령계층별로는 전년동기대비 20~30대의 실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여전히 실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실업률이 5.9%(558천명)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5.9%, 중졸 이하 4.2%의 순이었다. 고졸, 중졸 이하의 실업자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비중이 늘고 있다. 전체 실업자에 대한 대졸 이상 실업자의 비중은 1999년 1/4분기 18.2%였던 것이 2000년 1/4분기 들어서는 23.2%로 늘어났다. 이들 중 63.6%가 구직기간이 1~5개월이었다.

〈표 7〉 연령계층별·교육 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1999. 1/4	1999. 4/4	증감률	2000. 1/4	전년동기대비	
					증 감	증감률
전 체	1,749 (8.4)	1,011 (4.6)	-36.3	1,092 (5.1)	-657	-37.6
15~19세	113 (26.2)	67 (15.1)	-26.4	79 (16.4)	-34	-30.1
20~29세	573 (12.9)	367 (8.2)	-34.1	402 (9.0)	-171	-29.8
30~39세	445 (7.2)	223 (3.6)	-41.9	242 (4.0)	-203	-45.6
40~49세	355 (6.9)	198 (3.6)	-37.1	215 (3.9)	-140	-39.4
50~59세	204 (6.9)	114 (3.5)	-38.7	113 (3.7)	-91	-44.6
60세이상	59 (3.4)	42 (2.0)	-25.0	41 (2.2)	-18	-30.5
중졸이하	502 (7.6)	265 (3.6)	-42.3	281 (4.2)	-221	-44.0
고 졸	929 (10.0)	527 (5.5)	-38.0	558 (5.9)	-371	-39.9
대졸이상	318 (6.4)	219 (4.3)	-21.2	253 (4.9)	-65	-20.4

주 : ()안은 실업률.

자료 : 통계청.

전직유무별 실업자로 구분하여 보면, 신규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35.8%(88천명), 전직실업자는 37.7%(1,004천명) 감소하였다. 전직실업자 중 이직시기가 1년 미만인 자는 844천명(전년동기대비 38.4% 감소), 1년 이상인 자는 160천명(전년동기대비 33.3% 감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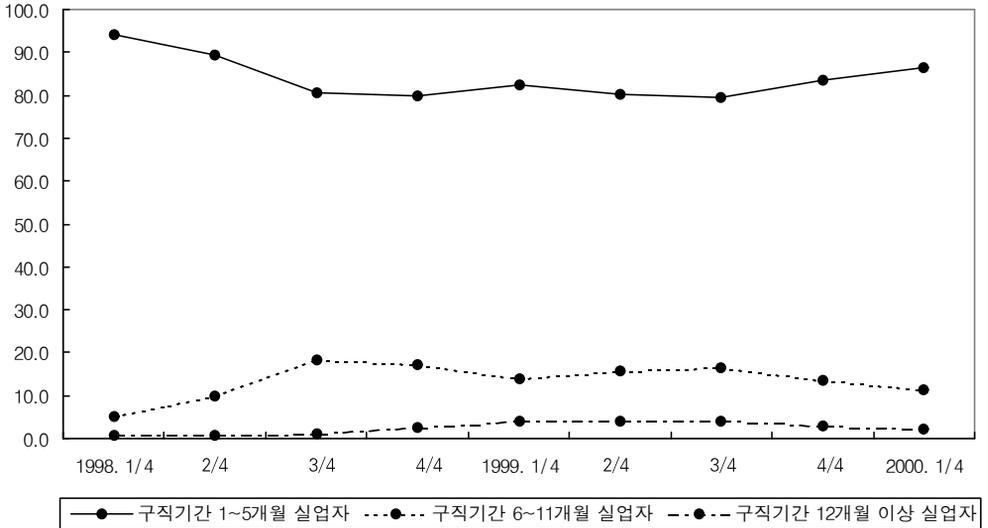
이직사유별로는 경기상승과 더불어 구조조정이 상당수 마무리됨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자발적 실업자²⁾의 비중은 39.3%로 전년동기(25.7%)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

◆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 감소

구직기간별로는 실업자 중 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945천명,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7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9.5%, 13.4%로 전년동기에 비해 전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감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2) 자발적 실업자는 직장을 그만 둔 이유가 개인가족적인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정년퇴직, 연로, 작업여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말한다.

(그림 1) 구직기간별 실업자 비중



요약하면, 2000년 1/4분기에는 실업자의 57.9%가 30대 이하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대부분 1~5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 구직기간이 1~5개월인 경우는 556천명이었으며 이는 30대 실업인구 중 76.8%를 차지한다. 또한 이들 중 자발적 실업자는 43.7%, 비자발적 실업자는 56.3%로 비자발적 실업자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하지만 1999년 1/4분기에 30대 이하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중 자발적 실업자의 비중이 27.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자발적 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